

#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화제 생략

강우순 · 이지영

(가야대학교 · 한국의국어대학교)

Kang, Woosoon & Jee-Young Lee. Discourse Topic Ellipse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17, 1-18.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topic ellipsis in the discourse level. We show even new information may be deleted if it is included in a real situation. We classified the data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i) The data with keywords which are relevant to a real situation. ii) The data with keywords which are not relevant to a real situation. iii) The data with general keywords, which can draw many discourse topics. iv) The data with silence which induces another utterance. Keywords have a crucial role in type 1 whereas a real situation has a crucial role in type 2. Both keywords and a real situ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type 3. Type 4 is compared with the rest of types, which treat only utterances, whereas type 4 treats utterances with silence. (Kaya University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1. 머리말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 담화 화제 생략이다. 담화 화제란 담화 속에서 두 사람 이상이 대화를 나눌 때 주제가 되는 내용이다. 화제란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므로 생략이 안되는 요소같으나 실제로 한국어 담화에서는 화제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담화 화제 생략은 실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담화 화제 생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상황의 개입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을 전혀 주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제 3자가 어떻게 담화 화제를 찾아 내는지 그 추론 과정도 살펴보았다.

담화 화제 생략이란<sup>1</sup> 담화에 있어서 화제가 되는 것이 담화 내내 생략이

---

\* 이 논문은 1992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 한국어 언어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발표 논문 제목은 "Discourse Topic Ellipses in Korean"이다. 이 논문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이 있었다. 특히 신현숙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sup>1</sup> 담화 화제 생략이란 용어는 이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 설정에 신현숙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영어에서 담화 화제가 생략된 경우이다.

- (1) The procedure is actually quite simple. First, you arrange things into different groups. Of course, one pile may be sufficient depending on how much there is to do. If you have to go somewhere else due to lack of facilities that is the next step, otherwise you are pretty well set. It is important not to overdo things. That is, it is better to do too few things at once than too many. In the short run this may not seem important but complications can easily arise. A mistake can be expensive as well. At first the whole procedure will seem complicated. Soon, however, it will become just another facet of life. It is difficult to foresee any end to the necessity for this task in the immediate future, but then one can never tell. After the procedure is completed one arranges the materials into different groups again. Then they can be put into their appropriate places. Eventually they will be used once more and the whole cycle will then be repeated. However, that is part of life. (Green 1989: 11-12)<sup>2</sup>

(1)에서 담화 화제는 무엇인가? 아무런 실제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담화 화제를 물어본다면 개개인마다 그 답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여기에서의 담화 화제는 세탁 과정이다. (1)에는 세탁 과정에 대한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sup>3</sup> 그럼에도 담화 화제는 실제 상황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생략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담화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할 자료는 한국어로 분석 자료는 영화, 드라마 대본과 실제 대화를 녹음한 것에서 뽑은 것이다.<sup>4</sup>

이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3절에서 자료를 분석하

<sup>2</sup> (1)은 Bransford & Johnson (1973)이 임상 실험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을 Green (1989)이 모호성 (vagueness)과 해석 (interpretation)을 설명하기 위해 재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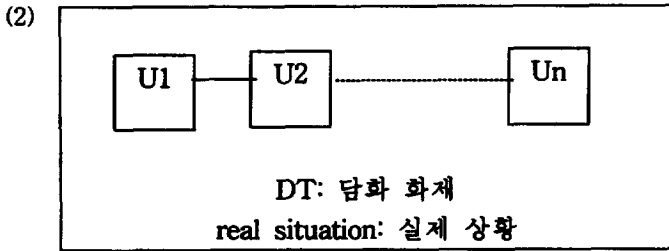
<sup>3</sup> Green은 실마리가 되는 단어 (cue word)로 'washing'과 'clothing'을 들고 있다.

<sup>4</sup> 1992년의 설문지에서 사용한 자료에서 드라마 대본은 KBS의 [행]과 MBC의 [사랑이 뭐길래]이며 실제 대화는 수업 담화를 녹음한 것이다. 1999년에 조사한 설문지에 사용한 자료는 영화 대본이며 그 영화는 [접속], [미술관 옆 동물원], [8월의 크리스마스]이다. 1992년의 정보 제공자의 수는 30명이며 1999년의 정보 제공자의 수는 16명이다. 1999년의 설문 조사는 1992년의 자료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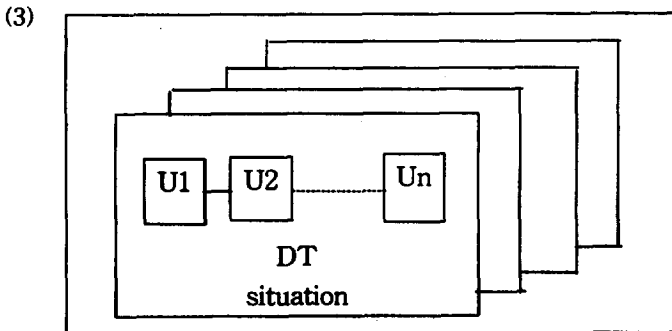
고자 한다. 자료는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 2. 모델

다음의 모델은 담화 화제 생략과 실제 상황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U1은 첫 번째 발화를 의미하며 발화의 수에 따라 모델의 발화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표시하였다.



(2)에서 큰 상자는 실제 상황을 나타낸다. DT는 담화 화제로 실제 상황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 U1에서 Un은 발화를 나타내며, 담화 화제가 발화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2)의 모델이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 여러 개이거나 담화 화제가 여러 개인 경우 (2)의 모델은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것은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에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상자를 볼 수 있다. 가장 큰 상자는 여러 개의 상황과 여러 개의 담화 화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큰 상자는 실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sup>5</sup> 제일 작은 상자는 담화 화제가 없는 발화

들이다. 따라서 (3)의 모델은 여러 개의 실제 상황과 실제 상황 속의 담화 화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는 발화는 담화 화제가 생략된 발화이므로 발화 자체가 담화 화제 없이 여러 개의 실제 상황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하나의 실제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의 담화 화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3)과 같은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2)에서 제시한 모델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자료 분석

이 장에서 분석한 자료는 영화 대본과 드라마 대본, 그리고 실제 담화를 녹음한 것 등이다. 1992년도에는 30명의 정보 제공자에게 설문지를 돌려 그 설문지를 토대로 자료의 유형을 네 개로 나눈 바 있다. 1999년 정보 제공자는 16명이며 1992년도의 설문지도 첨가하여 조사해 보았다. 1992년의 결과와 똑같은지 아니면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이 장에서는 자료를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누구나 추측이 가능한 담화 화제이다. 두 번째 유형은 실제 상황이 제공되지 않는 한 도저히 추측이 불가능한 담화 화제이다. 세 번째 유형은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주어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제 상황의 담화 화제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네 번째 유형은 침묵이 들어간 경우이다. 이 때 침묵은 발화를 유도하게 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침묵이 일관성있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침묵 후 다시 발화를 하게 된 경우이다.

#### 3.1. 제 1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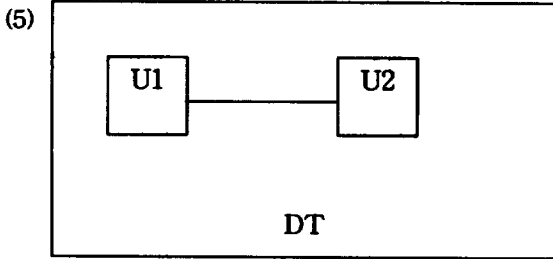
제 1유형은 실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담화 화제 추측이 가능한 경우이다. 다음의 두 개의 자료는 거의 모든 정보 제공자가 담화 화제를 정확하게 추측하였다.

- (4) P1 (U1): 풀 수 없어?  
 P2 (U2): 집에선 거의 안 피는데 왜 그래.  
 \_\_\_\_\_ = 주요어 (keyword)

P1은 담화에 참여하는 첫 번째 참여자를 의미하며 P2는 두 번째 참여자를 의미한다. U1은 담화 화제가 없는 첫 번째 발화이고 U2 또한 담화 화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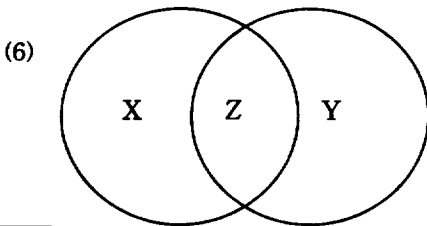
<sup>5</sup> 이한규 선생님께서 상황의 복잡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다.

없는 두 번째 발화이다. (4)에서 거의 모든 정보 제공자가 담화 화제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로 주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4)에서 주요어는 “끊다”와 “피다”이다. (4)는 드라마 대본에서 뽑은 것으로 (4)의 실제 상황은 P2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4)의 담화 화제는 담배이다. (2)의 모델로 위의 자료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T = 흡연

위의 자료는 46명의 정보 제공자 중 45명이 [담배]라는 담화 화제를 추론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거의 모든 정보 제공자가 [담배]라는 담화 화제를 추론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것을 주요어에서 추론한 것이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4)에서 주요어는 ‘끊을 수 없어’의 ‘끊다’와 ‘집에선 거의 안 피는데 왜 그래?’의 ‘피우다’로 볼 수 있다.<sup>6</sup> ‘끊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휘 항목과 ‘피우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휘 항목을 생각해 그것의 공통 대상을 찾아내어 그 공통 대상을 담화 화제로 추론한다고 가정하였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도식의 X는 ‘끊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의 집합이고 Y는 ‘피우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의 집합이다. Z는 X와 Y의 공통 요소로서 X와 Y 모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어휘 항목이 되는 것으로 뽑은 것은 신기철·신용철 (1986)의 [새 우리말 큰 사전]이다.<sup>7</sup>



<sup>6</sup> 주요어의 설정은 실제 상황과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sup>7</sup> 주요어에 대한 대상이 되는 어휘 항목은 개인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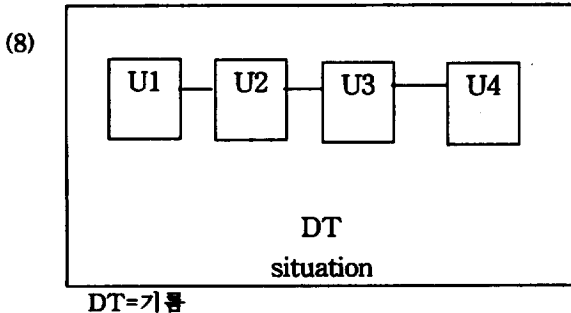
$$\begin{aligned}
 X &= \{\text{노끈, 차표, 치맛감, 영수증, 연, 소식, 신문, 물공급, 담배, 술, 혀, 목숨}\} \\
 Y &= \{\text{담배, 냄새, 먼지, 어린양, 문제, 제주, 부지런}\} \\
 Z &= \{\text{담배}\}^{\circ} \\
 X &\rightarrow Z \leftarrow Y^{\circ}
 \end{aligned}$$

(4)에서 주요어는 담화 화제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위와는 다른 것이라면 반드시 ‘담배’라는 담화 화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모델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7)에 있는 자료이다.

- (7) P1 (U1): 얼마나 넣어드려요?  
 P2 (U2): 가득이요.  
 P2 (U3): 얼마예요?  
 P1 (U4): 만땅 삼천원입니다.

(7)의 실제 상황은 기름을 넣는 상황이며 16명 중 15명의 정보 제공자가 [기름, 휘발유, 경유, LPG] 등의 답을 함으로써 (7)의 담화 화제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2)의 모델로 (7)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sup>○</sup> 논평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었다. 만약 상황으로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교집합에서 적어도 유일한 원소가 아니라 복수 원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상황이므로 이것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 단계에까지 설명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였다.

<sup>○</sup> 이 표시의 의미는 X와 Y에서 Z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합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교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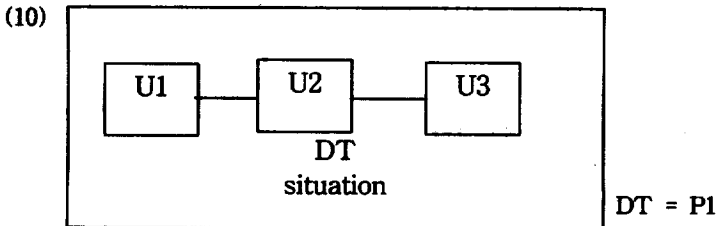
(7)의 주요어는 '넣다'와 '만땅' 등으로 볼 수 있다. (6)과 같은 추론으로 [기름]이라는 담화 화제를 추론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만땅'이라는 주요어만으로도 [기름]이라는 담화 화제를 추론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땅'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일 경우는 기름을 넣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3.2 제 2유형

제 2유형은 제 1유형과는 반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담화 화제를 추측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철저하게 실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 (9) P1 (U1): 그렇게 무거워?  
 P2 (U2): 아뉴... 해본 소리여유...  
 P1 (U3): 발 시리지?

(9)의 담화는 P2가 P1을 업고 시내를 건너면서 한 대화이다. (2)의 모델을 사용하여 (9)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9)의 대화로 그 상황을 추측하기란 어렵다. 45명의 정보 제공자 중 1명만이 무거운 것의 대상을 사람으로 대답했다. 대부분의 정보 제공자는 주요어로 '무겁다'와 '시리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 (11) (9)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답  
 {그게(6), 짐(11), 가방(6), 얼음(3), 빈칸(3), 책(1), 어휴(1), 뭐가(1), 웡(1), 보따리(2), 시신(1), 야(1), 썰매(1), 아니(1), 물건(2), 배낭(1), 물동이(1), 신발(1)}

질문의 유형이 '무엇이 무거운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정보

제공자는 '무겁다'를 주요어로 사용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우리가 추론 과정으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추론 과정의 답은 4명이었다. 그 추론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X = {죄, 책임, 성격, 입, 기계, 분위기, 머리}  
 Y = {얼음, 썰매, 개울, 찬공기}  
 Z = {얼음, 썰매}

즉 동시에 무겁고 차가울 수 있는 것은 [얼음]과 [썰매]이다. 그러나 정보 제공자가 주요어로 생각한 단어는 '무겁다'이고 무거운 것의 대상을 한정해서 그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모든 정보 제공자가 담화 화제를 추론하지 못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3) P1 (U1): 없으신 것 같아서 샀어요.  
 P2 (U2) 난 필요 없어, 홍작가가 써.  
 P1 (U3): 한 팀이라면 뭔가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13)의 실제 상황은 P1이 컵을 들고 P2에게 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13)의 담화 화제는 [컵]이다. 그러나 16명의 정보 제공자 중 컵이라고 추론한 정보 제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답은 다음과 같다.

- (14) (13)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답  
 만년필, 타자기, 만화가 펜, CD, 펜, 책, 노트북 컴퓨터, 옷, 커피, 승용차,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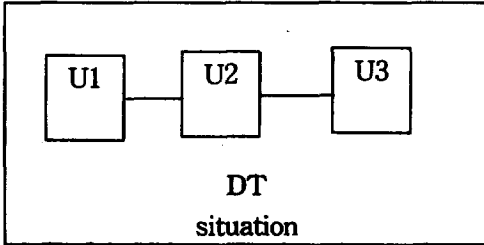
(14)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답을 기초로 주요어를 추측하면 주요어는 주로 '홍작가'로 거의 작가에 관련된 것이 많음을 볼 수 있다.

(13)을 모델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sup>10</sup> 1992년의 설문지에서는 빈칸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그것의 대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발화의 모양을 쓰는 정보 제공자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1999년 설문지에서는 빈칸을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15)



DT: 컵

(13)과 같은 담화에서는 담화 화제가 없이 발화만 주어진다면 담화 화제가 무엇인지 거의 추측할 수 없는 담화이다. 따라서 (9)와 (13)과 같은 자료에서는 실제 상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3.3. 제 3유형

다음의 유형은 주요어와 실제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경우이다. 주요어와 실제 상황이 담화 화제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16) P1 (U1): 받아봐.
- P2 (U2): 성님이 받아보세요.
- P1 (U3): 자네가 받아봐.
- P2 (U4): 싫어요.
- P1 (U5): 아, 받아봐.
- P2 (U6): 싫다니까요.
- P1 (U7): 나도 못받아 그럼.<sup>11</sup>

(16)의 주요어는 '받아봐'로 받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휘 항목은 (17)에 나타나 있다.

- (17) X = {선물, 전화, 상, 95점, 지원서, 햇별, 현금, 바람, 물건, 과일, 손님, 영향, 쌀, 술}

<sup>11</sup> '그럼'은 표준어가 아니나 대본에 쓰인대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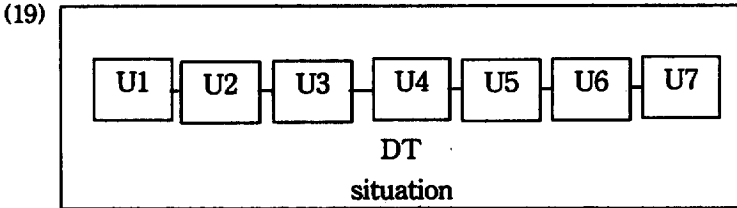
받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7)에서 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보 제공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아보자.

(18) (16)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답

전화(29),편지(3),동생(2),신문(3),자네가(1),그냥주는거니깐(1),선물(1),  
검사(1),글씨(1),자(1),아우님(1),짐(1),쌀(1)

(17)의 사전에서 받는 대상과 비교해 보면 (18)의 받는 것은 실제적인 대상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6)의 실제 상황은 전화벨이 울리는 것으로 담화 화제는 전화이다. 이를 모델을 사용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DT: 전화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는 담화 참여자가 발화를 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유형은 침묵이 들어간 경우이다.

### 3.4. 제 4유형

다음에서 다룬 자료는 침묵이 들어간 담화이다. 이 유형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발화를 유도하는 침묵도 발화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침묵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살펴하고자 하는 침묵은 화자로 하여금 발화를 유도하는 침묵만을 여기에서 다루고자한다. 침묵이 들어간 자료는 위의 세 가지 자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위의 세 유형은 모든 화자가 발화를 하는 경우이지만 네 번째 유형은 모든 화자가 발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자료는 수업 담화로 담화 참여자는 교수와 학생이다. 실제 상황은 교수가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침묵은 교수로 하여

금 학생들에게 제차 물어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대화상에서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담화에 있어 역할을 하는 침묵도 담화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20) P1 (U1): 또 없을까요?  
 P2 (S1): ....  
 P1 (U2): 예 그 다음에 또.  
 P2 (S2): ....  
 P1 (U3): 이제 더 이상 없어요?  
 P2 (S3): ....  
 P1 (U4): 그 이상은 이제 더 뭐 아무 것도 없어요?  
 P2 (S4): ....  
 P1 (U5): 이제 저 정도면 충분히 설명 할 수 있을까요?  
 P2 (S5): ....  
 P1 (U6): 예 그러면 없다고 하고.

(20)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대답은 (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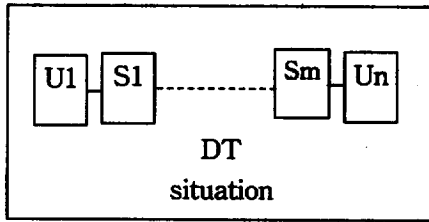
(21) (20)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답

(질문,문제,뭐,다른것,다른설명,자료,재미있는일,의견,다른질문,건의할건,음식,사람,보고서,더이상,다른힌트,더설명할게,보충할내용및질문,빈칸,연설문,할일,무응답,발표자,정보,발표논문,홍정,전과)

정보 제공자들이 이 담화가 수업 담화라는 것을 예상한다할지라도 만약 실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담화 화제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 또한 실제 상황이 담화 화제 생략의 설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의 자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침묵은 분명히 발화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20)에 나온 침묵과 같은 역할, 즉 다른 발화를 유도하는 침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침묵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 제약의 방법은 발화로 시작해서 발화로 끝나는 담화로 가정하고 그 속에 침묵이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한다. 그것을 모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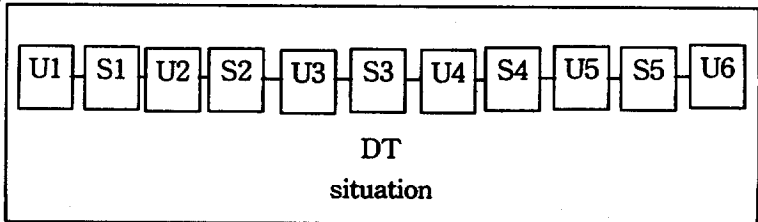
(22)



$$m = n-1$$

(22)의 모델은 발화로 시작해서 발화로 끝나는 담화를 표시하며 그 대화 속에 침묵이 포함되면 그 침묵이 발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발화로 끝나야 하며 침묵이 발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발화가 끝나는 숫자에서 하나 모자란 것이 침묵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위의 모델로 (19)의 자료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3)



DT = 다른 설명

####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담화 화제 생략이 어느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고, 또 어떻게 담화 화제를 추측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담화 화제 생략이 담화 총위에서 이루어짐을 보이기 위하여 모델을 설정하여 그 모델을 가지고 자료들을 설명해 보았다. 담화 화제 생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아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실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의 정보 제공자들이 담화 화제를 추측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실마리가 되는 주요어가 담화 화제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담화 화제를 추측하는지 그 과정

또한 살펴 보았다. 두 번째 유형은 거의 모든 정보 제공자가 담화 화제를 찾지 못한 경우이다. 실마리가 되는 주요어와 실제 상황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정보 제공자는 담화 화제를 찾는데 실패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주요어와 실제 상황이 상호 작용하여 담화 화제를 찾는 경우이다. 이 경우 거의 반 수의 정보 제공자가 담화 화제를 찾았으며 나머지 반 수는 추측 가능한 관련된 담화 화제를 찾았다. 네 번째 유형은 위의 세 가지 유형과는 달리 침묵이 들어간 유형으로 침묵도 발화와 같은 위치로 다루었다. 그러나 침묵을 발화와 똑 같이 다룰 수 없고 또 모든 침묵을 같은 것으로 다룰 수도 없으므로 침묵과 관련되는 모델을 따로 설정하였다. 발화와 같은 층위로 구별되는 침묵은 그 침묵으로 인하여 발화를 유도하는 침묵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발화와 같은 층위로 다루었다.

### 참고문헌

- 김미형. 1990. 생략과 정보구조. 자하이문논집. 제 6·7합집. 31-61.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일웅. 1986. 생략의 유형. 국어학신연구. 349-360.
- 김정호. 1982. 생략에 대하여. 한글.
- 김종백. 1971. 무주어문과 주어생략문. 국어학자료 논문집 3. 대제각.
- 박승윤. 1981. 생략에서의 동일성 조건. 언어 8-1. 131-144.
- 박양규. 1980. 주어의 생략에 대하여. 국어학 9. 1-25.
- 신기철·신용철. 1986.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신현숙. 1982. 목적격 표지 '-를'의 의미 연구. 언어 7-1.
- 장석진. 1974. 보이나 안들리는 '너'와 '나'. 어학연구 10-2.
- 최재호. 1990. 담화 공통공간에 대한 연구. 언어15. 271-281.
- 한재현. 1981. 생략과 대응 현상. 한신문화사.
- Bransford, J., & Johnson, M. K. 1973. Consideration of some problems in comprehension. In W. G. Chase (E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New York: Academic Press. 2.
- Green, G. M. 1989. *Pragmatics and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LEA.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20

가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717-800

Email: woosoonkang@hanmail.net

전화: +82-543-959-3100

132 강우순 · 이지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130-791  
전화: +82-2-962-7119  
Email: jeey@netsgo.com

접수일자: 1999. 10. 1.

계재일자: 1999. 10. 11.

<1999년 설문지 및 결과>

	실제 상황	발화	정보제공자의 답
1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대화로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주례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	P1: 그쪽에서 난리 났잖군. 시간 좀 늦추지 그랬나? P2: 불가능했습니다, 의원님. 그 쪽 사정도 있고 해서... 4시엔 또 P1: 그 4시전 거절하지 그랬나? P2: 그건 안됩니다. 의원님 지역구에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P1: 생색도 안 나는 일인데.	연설시간(1),미팅 (1),약속(3),만나는 일(1),마감시간(1), 만나는시간(1),회의 (1),주례(1),약속시 간(2),골프약속(1), 3시(1),회의시간(1)
2	P1이 외출 준비를 기다라고 있다.	P1: 아직 안됐어? 얼마나 있어야 돼? P2: 다 됐다니까! P1: 다 됐다 그러고 왜 안와와! 문이나 좀 열어봐.	상황(1),소변(1),화 장실용무(1),큰불일 (1),은행터는것(1), 일,나갈준비(3),화장 실(2),출근준비(1), 떨썹어서(1),대변(1) 카드(1),준비(1)
3	소설 공모를 하는 P2에게 P1이 물어보고 있다.	P1: 여러 번 떨어졌지? P2: ... P1: 넌 너 이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 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있 어? P2: 그럼! 요즘 사람들은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각자 이어폰을 끼고 듣는 꼴 같아. 조금은 이기적이고 또 조 금은 개인적이고 옹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주지 않는... P1: 너, 아까 그 시 아홉답다고 했지? 언젠가 그 시가 너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이리 와봐! P2: 같이 쓰게? P1: 기왕에 타이핑 쳐주는 건데 뭐... 대 신 상금 타면 모른척하기 없기다! P2: ... 좋았어!	공모전(2),소설(2), 무용담(1),글쓰는대 회(1),테스트(1),공 모(2),사랑(1),신춘 문예(1),소설공모전 (3),경연대회

4	<p>갈끔한 P1이 P2에게 젖은 우산을 주면서 가면서 말리라고 주고 있다.</p>	<p>P1: 내가 다 들태니까 이것 좀 써. P2: ...? P1: 가면서 말리란 말야. 젖은 채로 가면 집안만 지저분해져. 가뜩이나 청소도 안 하면서.</p>	<p>옷(7), 빨래(1), 바지(2), 젖은종이(1), 우산(3), 머리(1), 젖은 옷(1)</p>
5	<p>사은 김밥을 사오면서 P1이 P2에게 권하고 있다.</p>	<p>P1: 좀 먹어줘. 사은 사람이 안 먹으면 미안하잖아, 응? P2: 넌 내가 지금 배가 고플거라고 생각하니? 넌 연애해본 적도 없지?</p>	<p>야식(1), 빵(1), 피자(2), 피자(2), 먹는것(1), 음식(2), 밥(2), 김밥(1), 과일(2), 햄버거(2)</p>
6	<p>유아용 컵을 보며 P1이 P2에게 말하고 있다.</p>	<p>P1: 무슨 그림이 그렇게 유치해? P2: 안 깨지는 걸 달랬더니 유아용을 주더라</p>	<p>작업실(1), 컵(7), 그릇(1), 벽(1), 화실(1), 접시(1), 밥그릇(1), 문구점(1), 거울(1), 그림(1)</p>
7	<p>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를 밀면서 하는 대화이다.</p>	<p>P1: 또 밀어볼까? P2: 완전히 끝장났어. 이젠 정말 패차장감이야. P1: 자전거 타고 올걸... P2: 말이 되는 소릴 해라. 고삐 자전거를 갖고 필 한다고.</p>	<p>차 · 자동차(14), 오토바이(1), 고장난 자전거(1)</p>
8	<p>P1이 스쿠터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p>	<p>P1: 얼마나 넣어드려요? P2: 가득이요. 얼마예요? P1: 만땅 삼천원입니다.</p>	<p>경유 · 기름 · LPG · 휘발유(15), 물건(1)</p>
9	<p>P1이 머리가 큰 손님을 맞아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사진을 찍고 있다.</p>	<p>P1: 저, 잠깐만 만져 드릴게요. 예, 훨씬 더 좋네요. 그러네요 밀에 것만. P2: 괜찮은데. P1: 괜찮으세요. 찍을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찰칵.</p>	<p>옷(2), 머리카락(3), 옷맵시(1), 머리손질(1), 화장(1), 사진기(1), 넥타이(1), 치마주름(1), 머리(3), 신발(1), 몸(1)</p>
10	<p>P3가 한 원장찌개를 맛보고 있다.</p>	<p>P1: 나도 꽤 연구하는데 이런 맛이 안 나와. P2: 나도 그래. P3: 이게 뭐 아무나 되는 건줄 아냐? 정성이 모자라서 그래.</p>	<p>요리(5), 맛(1), 음식(5), 패스트푸드(1), 원장(1), 간장(1), 자장면(1), 원장국(1)</p>
11	<p>홍작가가 P1에게 컵을 주면서 하는 대화이다.</p>	<p>P1: 없으신 것 같아서 샀어요. P2: 난 필요없어. 홍작가가 써. P1: 한티이라면 원가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p>	<p>만년필(3), 타자기(1), 만화가펜(3), CD(1), 펜(1), 책(2), 노트북 컴퓨터(1), 옷(1), 커피(1), 승용차(1), 신발(1)</p>



<1992년 설문지><sup>12</sup>

	실제 상황	발화	정보 제공자의 답
1	P2가 담배를 피고 있다.	P1: 끊을 수 없어? P2: 집에선 거의 안피는데 왜그래.	■(45),야 그게(1)
2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P1: 받아봐. P2: 성님이 받아보세요. P1: 자네가 받아봐. P2: 싫어요. P1: 아, 받아봐. P2: 싫다니깐요. P1: 나도 못받아 그람.	■(29),편지(3),동생(2),신문(3),자네가(1),그냥주는거니깐(1),글쎄(1),자(1),아우님(1),짐(1),쌀(1)
3	속을 들고 서 있다.	P1: 많이 됐니? P2: 국은 풀일 수 있을 거예요.	나물(16),■(14),냉이(6),감자(3),우거지(1),갯잎(1),산나물(4)
4	창문을 열고 있다.	P1: 눈 안따겨워? P2: 조금 따겨워요. P1: 너무 많이 여는거 아닌가? P2: 좀 열었다 다시 닫지 응?	문(13),■(13),아궁이(2),블구멍(2),뚜껑(4),그림(1),이계정말(1),연탄마개(1),방문(1),아궁이문(1),블라인드(1),에어콘(1),무응답(1)
5	현글라스를 끼고 있다.	P1: 이 녀석와 좀 벗어라. 도대체 무슨 것이야. 야밤에. P2: 개성창조요.	옷(18),■(11),모자(8),양말(2),팔(1),어린티(1),발(1),안경(1),외투(2),가발(1)
6	옛치기를 하고 있다.	P1: 먼저 꺾어. P2: 니가 먼저 잡았으니까 너 먼저 꺾어. P1: 일단 킷기름부터 바르고.	너(12),■(8),꽃(5),빈칸(3),나무(4),자(1),다리(1),엄지(1),술잔(1),술(1),장미(1),정화선(1),마루가지(1),무응답(2),팔(2),머리(1)
7	하모니카를 불었다.	P1: 나 잘 불지 성. P2: 그러, 잘 분다. P1: 성이 한번 불어봐. P2: 성은 잘 못 불어. P1: 불어봐, 그래도.	피리(18),■(5),풍선(4),휘파람(4),나팔(1),이거(1),플피리(1),악기(2),불붙일때부는바람(1),막지(1)
8	화장품을 가져다주 고은 P2에게 P1이 묻고 있다.	P1: 드렸어유? P2: 한번 발라보것대.	화장품(13),약(6),연고(4),롤드크림(3),빈칸(2),■(2),선물(1),영양크림(1),말씀(1),개(1),돈(1),갓다(1),크림(1),무좀약(1),로션(3),소문(1),스킨(1)

<sup>12</sup> 이 논문에서는 1992년의 설문지를 1999년 정보 제공자에게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 결과는 1992년과 1999년 것을 합친 것이다.

9	P2가 P1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고 P1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	P1: 진짜것지요? P2: 뭐가. P1: 혹시 우습게 가져면 어떡하냐 해서요.	이것(5),보석(6),참기름(3),그림(2),이물건(2), (4),골동품(1),정말(1),티켓(1),상품(1),수표(1),카세트(1),인상(1),아저씨(1),그것(1),소식(1),수박만한참외(1),꿀(1),물건(2),산삼(1),브랜드(1),신발(1),무용담(2)
10	난로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	P1: 줄이면 냄새나는 거야. P2: 차라리 끄는가. P1: 끄면 냄새날까봐 줄여 낮어요. P2: 어쩐지.	불(6),심지(5),케스(2),석유(3),콘로불(2),난로불(2), (5),석유난로(2),그걸(1),이렇게(1),벨브(1),연소기(1),불꽃(1),초등불(1),버너불(1),난로심지(1),모름(1),향수(1),가스불(1),환풍기(1),향(1),에어콘(1),전기난로(1),신발(1),담배(1),무용담(2)
11	수업 시간에 다른 설명이 더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P1: 또 없을까요? P2: ... P1: 예 그 다음에 또. P2: ... P1: 이제 더 이상 없어요? P2: ... P1: 그 이상은 이제 더 뭐 아무것도 없어요? P2: ... P1: 이제 저 정도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P2: 예 그러면 없다고 하고.	질문(7),문제(4),뒤(3),다른것(2), (1),자료(4),재미있는일(1),의견(1),다른질문(1),건의할건(1),음식(3),사랑(1),보고서(1),더이상(1),다른링크(1),더설명할게(1),보충할내용및질문(1),빈칸(1),연설문(1),할일(1),무용담(3),발표자(1),정보(1),발표논문(1),홍정(1),전과(1)0
12	P2가 P1을 업고 시내를 전내고 있다.	P1: 그렇게 무거워? P2: 아뉴 한 번 해본 소리여유. P1: 발 시리지?	그게(6),짐(12),가방(6),얼음(3),빈칸(3),책(1),어휴(1),뭐가(1),용(1),보따리(2),시신(1),야(1),설매(1),아니(1),태낭(1),예인(1),신발(1),물건(2),물동이(1)